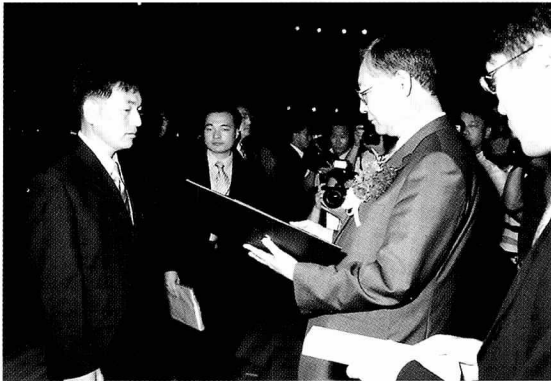


제3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들...



▲ (주)한라산 김덕호 부장/철탐산업훈장



▲ 영림전자공업(주) 윤진봉 부장/대통령 표창

제36회 산업안전보건대회 개최

제36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윤관중 성암산업(주) 대표이사가 명예의 동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안전협회 제주지회 회원인 (주)한라산의 김덕호 부장이 개인으로 유일하게 철탐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밖에 영림전자공업(주) 윤진봉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유공자 113명이 선정되었다.



안전협회 “근골격계 질환 노사 현안 대책 방안 세미나”에 800여명 몰려

안전협회는 제3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3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노사 현안 대책 방안”을 주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신재 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이 “2003년도 근골격계질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데 이어, 충북대학교 임현교 교수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사업장 등 800여명이 몰려 제3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술세미나 중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제2회 2003년 안전그림 공모전 수상자 시상



지난 7월 3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안전협회에서 주관한 제2회 2003년 안전그림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선린인터넷고등학교의 최민지 학생을 비롯해 금·은·동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한편, 이날 시상식장에는 안전그림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30점이 전시되어 찾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상작품에 대해 학교, 산업단지 등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길거리 전시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협회 부산지회 신사옥 이전 현판식 가져



안전협회 부산지회는 자체사옥을 매입하고 이전 현판식을 지난 6월 27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노동부 부산지방청 송지태 청장, 동래·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서영삼 소장, 강종철 소장 등 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부산진구 가양동에서 전포동으로 이전한 부산지회는 이번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최첨단 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다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기대하며, 부산지역 안전인들이 쉽게 찾아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안전협회 부산지회는 중앙회, 수원지회에 이어 세번째로 자체사옥을 보유하게 되었다.

외국 노동관계자 방문 잇따라



▲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부 장관 방문



▲ ILO 방문단 방문

지난 7월 16일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부 장관 R.Aknazarova가 안전협회를 내방하여 김문영 관리이사와 대담을 나눈데 이어 19일에는 Dr. Jukka Takala, ILO SafeWork 국장과 윤양배 ILO 파견관 등 ILO 방문단이 방문하여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한 방안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한편 ILO의 Dr. Jukka Takala SafeWork 국장은 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안전기술에 정기적으로 ILO자료가 게재되고 있는 것과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PSM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한국의 ILO 자료 보급 센터로서의 역할과 동남아쪽에서의 PSM관련 화재 폭발시 현장조사 지원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지회,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예방 세미나” 개최



안전협회 인천지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200여 명이 넘는 안전관계자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끝마쳤다.

근골격계질환 관련 개정법령에 대한 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강현권 과장의 발표에 이어 “작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대책 및 인간공학적인 교착”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가 발표하였다. 인간공학적 측면에 접근한 사례

와 근골격계 질환 발생 특성을 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장과 개념조차 모르는 사업장에 유익한 세미나가 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울산지회, 제11회 산업재해추방 결의대회 개최



안전협회 울산지회는 노·사 산재예방에 대한 의식 고취와 조기 자율안전 정착을 통해 안전한 일터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제11회 산업재해추방 결의대회를 7월 10일 울산 학생체육관에서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주)LG생명과학 온산공장 최원석 과장(울산광역시장상)을 비롯해 산재예방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장 수여식과 함께 산업재해 추방을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의회 김철욱 의장, 남구청 이채익 청장, 울산상공회의소 김관 부회장 등의 기관장과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이태우 과장, 보건협회 오도석 사무국장 등 안전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구미지회, 안전보건인 산재예방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가져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지역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보건인 산재예방결의대회 및 체육대회”가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체육관에서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이종호 소장,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이은애 지사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안전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6일에 개최되었다.

1부 행사로 구미시장상을 비롯해 대한산업안전협회장상 등 산재 유공자 표창과 함께 구미지역 안전관계자들이 하나되는 2부 행사로 체육행사가 개최되었다.



이성근 국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안전협회 울산지회 이성근 국장은 제36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성근 국장은 23년간 오직 한길을 걸어오면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을 하게 되었다. 